

미술은 과거 보여주는 창이자 미래 이끄는 해답
독자 눈높이에 맞춰 쓴 '미술 여행 가이드'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1.2

양정무 지음

최근 인문학은 열풍을 넘어 일반의 교양으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의 인문학 프로그램도 늘었고 지역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강좌 인기도 높다. 기업과 대학의 면접이나 승진 시험에서도 인문적 소양을 중요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인문학은 대부분 전문 지식에 대한 배움의 문턱을 낮추고 인문학의 소비를 늘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더러 입문이라는 기능에 집중하다보니 지식의 나열과 초보적인 개념들이 중시돼 정작 지식은 쌓이지만 이를 매개로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응용하는 데는 미진했다. 한마디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입문서라는 장점은 살리면서도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이 세상 모든 지식'이라는 시리즈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사회평론 출판사에서 기획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가 펴낸 이 책은 '인문학의 꽃'인 미술사로 만나는 인류의 도전과 좌절, 경쟁을 담고 있다.

저자는 미술은 과거를 보여주는 창이며 미래를 이끄는 해답이 담겨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19세기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은 "위대한 국가는 자서전을 세 권으로 나뉘 쏜다. 한 권은 행동, 한 권은 글, 나머지 한 권은 미술이다. 어느 한 권도 나머지 두 권을 먼저 읽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중 미술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말했다.

책은 모두 두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1권은 미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류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었다는 관점에서 기술돼 있다. 즉 "호모 그라피쿠스, 미술하는 인간이 살아남는다"로 요약될 수 있다. 2권은 지금까지 서구 사회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 로마 문명과 미술이 어떻게 성장해 꽃을 피웠는지 그 과정을 살핀다. 2권은 "인간, 세상의 중심에 서다"로 집약된다.

책은 미술사의 기본과 정석을 다루면서도 독자들에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풀어낸다. 어떻게 미술을 감상해야 할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은 무엇인지 등 여행 가이드처럼 안내해준다. 또한 유명한 미술 작품들 사진과 섬세한 일러스트 등이 수록돼 있어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사회평론·각 권 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 '삼둥이 밸리'가 답이다

<에너지·자동차·문화콘텐츠밸리>

다정 다감, 남도를 위하여

이명종 지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최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둥이밸리(에너지밸리, 자동차밸리, 문화콘텐츠밸리)와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명종 본부장은 남도가 나아가 할 방향을 '삼둥이밸리'에서 찾는다. 이 본부장이 최근 펴낸 남도 사랑을 담은 '다정다감, 남도를 위하여'는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과 애정이 담겨 있다.

혹자들은 책 제목만을 보고 저자의 고향이 분명 남도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고향은 충청도다. 이 본부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경제통계국, 인사경영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4년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는, 남도를 사랑하



저자는 광주전남의 미래는 '삼둥이밸리', 즉 자동차밸리, 에너지밸리, 문화콘텐츠밸리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빛가람에너지밸리 조감도. <광주일보 DB>

는 시민이자 금융기관 지부 책임자로서 지역발전을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광주 일보를 비롯한 신문에 기고하고 방송에도 출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고를 할 때는 '광주전남'이라는 지역명 대신 '남도'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지역 특유의 다정다감(多情多感)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었다.

저자가 중앙은행 지역담당 책임자로서 갖는 남도에 대한 애정은 '남도마케팅'이라는 전략으로 제시됐다. 남도의 미래는 이른바 '삼둥이밸리', 즉 자동차밸리, 에너지밸리, 문화콘텐츠밸리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밸리는 자동차 핵심부품 클러스터와 100만대 생산 기지에 방점이 놓여 있다.

에너지밸리는 한국전력이 중심이 돼

나주 빛가람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인근에 에너지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며 문화콘텐츠밸리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밖에 책에는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단상과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발전 전략,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등 애정을 가지고 남도를 분석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KTX 빨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이나 나고야의 사례처럼 승정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지금"은 수모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특색에 맞게 개발하면 점차 수요가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별미를 묶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2633억 원을 투자하여 명품섬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육지에서 굴러다니는 남도한바퀴 버스처럼 '가고 싶은 섬'까지 가는 여정에 남도의 역사유적지, 문화체험 및 특산물 맛보기 등 시식코너용 관광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면 좋을 듯하다."

저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남도를 알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나는 매일 아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들어설 때마다 '인생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페이퍼앤북·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연과 생명, 그리고 진화론의 비밀



판다의 엄지

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2002년 5월 22일 미국 최고의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심슨 가족' 시즌 13 마지막 에피소드인 22편이 끝날 때 '심슨 가족'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한 과학자의 죽음을 추모했다. 바로 22편 방송 이틀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였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평생 24권의 단행본과 101편의 서평, 497편의 논문, 300편의 '내추럴 히스토리' 에세이를 남겼다. 그에게 1980년에 처음 출간된 '판다의 엄지'

(우리나라는 1998년 발간)는 출간 즉시 당대 지식인들의 열호와 같은 지지를 받으며 1981년 전미 도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판다의 엄지'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과학이 부국강병의 기틀로 여겨지던 시절, 과학 사회학과 진보적 관점에서 진화론과 과학의 이면을 살핀 이 책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국어판이 출간됐을 때부터 우수과학도서로, 대학 신입생 필독서로 화제를 모았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논쟁 주제들 중 일부는 시간의 흐름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해소된 것도 있고, 의미가 축소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자연과 생명 그리고 진화론과 과학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사이언스북스·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생이 농담을 하면 인간은 술을 마신다"



안녕 주정뱅이

권여선 지음

2008년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 권여선의 다섯 번째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가 발간됐다.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겨울까지 발표한 일곱편의 소설을 묶은 작품집에는 인생이 던지는 잔혹한 농담과 그 비극을 견디는 자들의 아름다운 생이 그려져 있다.

한국문학의 굳건한 성취로 인정받는 권여선은 이번 소설집에서 이해되지 않

는, 그러면서 쉽사리 잊히지 않는 지난 삶의 불가해한 장면을 주목한다.

특히 이번 소설집에는 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그들은 습관적으로 혹은 무언가를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술을 마신다. 아이를 빼앗기고 술을 마시다 알코올중독이 돼 버린 '볼밤'의 영경이 술에 취한 채 가수 영의 시를 외치는 장면은 압권이다.

천명관 소설가는 추천사에서 "그녀의 소설을 읽는 것은 한국문학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화살처럼 선연한 언어들은 여전히 푸르게 살아 있고 그녀는 아무도 가달은 적 없는 기억의 심연으로 우리를 잡아 이끈다"고 평한다.

<창비·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위대한 천재이자 흠결 많은 인간 나폴레옹의 '진짜 얼굴'



나폴레옹

프랭크 매클린 지음

지위도 돈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 야심가, 스풀다섯 살에 장군이 된 불세출의 군사 전략가, 근대 유럽의 기획자, 유럽 문화의 중심지 파리의 설계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따르고자 했던 몽상가, 히틀러와 스탈린의 선구로 꼽히는 독재자, 병사들에게 사랑받았던 용맹하고 친근한 꼬마 하사관, 21세기 정치인보다 여

론의 중요성을 더 잘 알았던 정치 선전의 귀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성격과 업적에 관해 평자들의 의견은 늘 갈렸다. 영국의 역사가 프랭크 매클린이 쓴 총체적이고 압도적인 전기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의 어린 시절에서 프랑스 혁명과 군사적 승리의 시기를 거쳐 1804년 황제 등극과 최종적인 패배,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폴레옹의 비범한 삶과 그 삶을 움직인 심층 심리를 추적한다.

위대한 천재이자 흠결 많은 인간이었던 나폴레옹의 삶을 입체적으로 되살려낸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전기다.

<교양인·3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http://start.sbc.or.kr

미래의 챔피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젊음으로 도전하고 열정으로 성공하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창업공간, 교육, 코칭, 사업비 등 다양한 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청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도움터 1357- 중소기업통합플랫폼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 T.031-490-1364, 1278, 1372
- 부신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T.055-548-6050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T.053-819-5011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광역시) T.062-250-3030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T.041-589-0631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체(경남 진주) T.055-751-9835